

모세와 Elohim 의 갑주

시편 90, 91 장은 모세 쓴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가장 오래된 한 부분의 성경인데(이디오피아 정교회에서는 정경으로 인정되는 예노서를 포함하지 않는다면) 모세가 시내산에 토라의 선물을 받는 것을 준비하는 시간 중에 쓰셨다. 미드라쉬 라바 (Midrash Rabbah)에 기록된 전통에는 이 시편을 이렇게 기록했다. “이 시편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구성 된 것인데, 그 이유는 그가 해꼬지 하는 악령들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Numbers Rabbah 7:3)

예루살렘 탈무드 (Jerusalem Talmud) 에는 악한 영에게 영향 받는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찬송가 91 장을 전통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기록되어 있다:

예루살렘에서 그들은 이를 통독했었는데
특히 안식일에는 고통에 젖은 사람을 위해서 통독하는 그것은 어느 것인가?
이것이 시편 91 장 이다. (b.Shab 8b)

Sefer Shimmush Tehillim (시편을 사용한 책)는 시편 91 장을 밝힌다:

이 시편을 읽고 또 그 전장 (시편 90)을 읽으면,
악령에 의해 몹시 괴롭혀진 사람, 또는 불치병이 있는 이는
El Shaddai 에 맹세하여, 그 후에 겸손하게 기도하면,
“이 모든 것이 당신의 뜻이 되게 하옵소서, 오 나의 Elohim,
악한 영의 아들을 데려 가십시오.
당신의 위대하고, 강대한 구별된 이름 El Shaddai 의 이름을 위하여
그는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당신은 곧 그에게 건강을 보낸 시고
그 완벽하게 회복해 주십시오. 당신의 종 모세가 이 시편을 낭독했듯이
이 아픈 자의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이 기도가 구별된 향이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분에게 올라 갔듯이 이 기도가
당신의 마음에 스며들게 하옵소서. 아멘! 셀라!”

이것은 아마 사울 왕의 악한 영을 내쫓기 위하여 다윗이 노래 한 것으로 예측 할수있다:

여호와와 그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헬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 치는 네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낮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삼상 16:14 - 23)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 있게 내리매 그가 집 안에서 정신 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두 번 피하였더라 (삼상 18:10 - 11)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삼상 19:9-10)

지금부터는 영적인 전쟁을 위해 준비하듯이 시편을 좀더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하겠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시편 91:1; NIV 1984)

“가슴이 있는자”의 의미는 사실상 Yahweh의 여성의 성향을 드러내시는 성품이신 성령 (Ruach HaKodesh)을 참고한다. “날개”는 유대 언어로 (**קנף**; 카나프) 인데 또한 “구석”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4 구석에 있는 “옷단 귀에 술 (tzitzit on the corner of garment)”을 상징하는 것으로 표현 할 수 있다. 또한 Tallit 는 성령 (Ruach HaKodesh)의 날개로 우리를 덮는 것을 대표한다.

이는 마치 두판의 십계명과 아론의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들어있었던 (언약 궤 속의 이세가지는 이 땅에 생명이 되어서 보냄을 받으신 성육신하신 멧시아를 상징함을 깨달을수 있다) 언약궤 위에서 날개를 펴고있는 두 체루빔의 모습은 마치 예수아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위로 나오셨을때에 함께하신 성령을 상징을 드러내는 부분임을 알수 있다. This is my son whom I love; with him I am well pleased (매 3:16-17) 야훼 하나님 아버지 궤서는 그 언약궤 위에 있는 두 체루빔 사이 위에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과 말씀을 하시겠다고 하셨다 (출 25 장) 이 장면을 통하여 우리는 세분은 동일하심으로 행사하시는 삼위 일체 (Tri-Unity) 이시되 분명히 위격, 곧 분명하신 질서의 관계로 우리에게 현현하심을 알수있다. (요한 14:28)

예수아 (Yeshua) 궤서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마 6:6) 말씀 하신다. 이 구절은 유대인들이 습관적으로 그의 ‘기도 목도리’ (tallit) 머리 위에 덮어 개인적인 방을 만드는 것인데 공중장소에 있다 할지라도 부분적으로 사적인 공간을 만들어 기도하기 위해서다. 야세르 (Jasher)의 책에 따르면, 에녹 (Enoch)는 수시로 “자신을 숨겼다,”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훈령을 받고 “감싸였다” .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울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시 91:2-3)

분명히 바울은 이 본문을 가지고 글을 쓴 것이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엡 6:10 - 12)

시편은 이어서 기록하기를: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시 91:4, NIV 1984)

방패와 하나님의 갑주는 여기서 처음으로 표현됐는데 바울은 이렇게 언급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엡 6:13 - 18)

시편은 이어서 기록하기를: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시 91:5)

라쉬 (Rashi)는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화살같이 날아 다니는 악마”라고 말한다. 바울이 이
구절을 보았을 때 말하기를: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엡 6:16)

계속해서 시편 91 장은: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시 91:6).

이 구절을 라쉬 (Rashi) “전염병 (Pestilence)”과 “재앙 (Destruction)”을 2 명의 악마의
고유명이라고 말한다.

천 명이 네 왼 쪽에서, 만 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시 91:7, NIV 1984)

라쉬 (Rashi)는 “엎드려지나 (fall)” 문맥상으로 “천막을 치다” 가 숨겨진 의미 이라고
말한다. 우리 주위에 악한 영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그러나 성령 (Ruach
HaKodesh)의 날개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 히브리 사람 생각에서는, 왼쪽은 “엄격
(Severity)” 이고 오른쪽은 “자비 (Mercy)”를 대표한다. 사람의 몸에서 가장 피가 많이 몰려
있으므로 동물적인 영혼의 영향력이 강한 왼쪽 심장에 혈기가 주로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되는
부분이므로 우리들은 이 왼쪽으로 전달되어져 오는 심장의 혈기를 잘 다스리고 지켜야 한다. (잠
4:23)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로다 (시 90:1)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여호와여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시 91:6)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욥 5:23)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 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시 91:8-16)

천국에 있는 이 한 면의 전쟁은 유다서 (Jude)에 적혀 있는데 미가엘 (Mikha'el)과 사탄(HaSatan)의 싸움이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유 1:9)

미가엘이 사탄을 패배할수 있던 것은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숙 3:2) 한 것을 우리는 주의 해야한다. 그 구절에는 여호와 (YHWH) 자체께서 똑 같은 말씀으로 사탄을 꾸짖으셨고, 사탄이 비난의 공격으로 대 제사장인 여호수아 (Joshua)을 공격을 향변하신다.

야훼의 말씀 (Word)은 능력이며 생명을 주시는 호흡의 원천이다. 그 글짜 한 마디 마다 능력이 있다. 천사들과 악령들이 전투를 할 때, 말 (Word)로서 싸운다. 우리는 예수님 (Yeshua)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 내시고” 라고 마태복음 8:16 절에 기록 되어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눅 10:17) 곧 이렇게 기록 되어 있다.

그런 이름을 누가 사용하는자는 “Ba' al Shem Tov” (좋은 이름의 주인)이다. 이러한 개념이 기적, 치유 또한 귀신 쫓아 내는 것을 예수아 (Yeshua)의 이름으로 행한것이, 그 선한 옛길안에 부여된 영혼육을 평안, 평강, 평온케 하시는 기록된 옛길로 (예렘 6:16) 향하는 “회복 언약” (New Testament/Renewed Covenant) 에 기록된 것이다.

창조주의 이름들중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하는 가장 힘이 있고 중요한 이름은 “YHWH” (Yahweh) 인데 Tetragrammaton 인 (4 글짜 이름)로 알려져 있는 신성한 이름이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잠 18:10)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요 17:11)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시 44:5)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시 54:1)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렘 10:6)

야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들은 매순간의 생각, 말, 행동과 그 각각의 의도가 어린 아이처럼 순수하여야 하고, 그러나 가정 높은 하늘을 비상하여 거센 바람을 타고 그 위에서 평정을 유지하는 독수리힘으로 날개의 힘으로 이땅의 험하고 거칠은 환경을 극복하며, 기록되신 말씀처럼 악을 대적하여 선을 취할때에, 하나님의 왕국이 보좌에서 흘러 주시는 힘을 받아 뗏시아 오실때까지 인내로 기다리며 그의 정해주신 길, 야훼의 길을 적극적으로 온 힘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뗏시아를 목적하여 걸어야 할것이다.

** 성경 구절에 표시 안된 것은 개역개정 성경을 사용함